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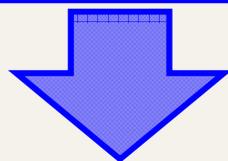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2MB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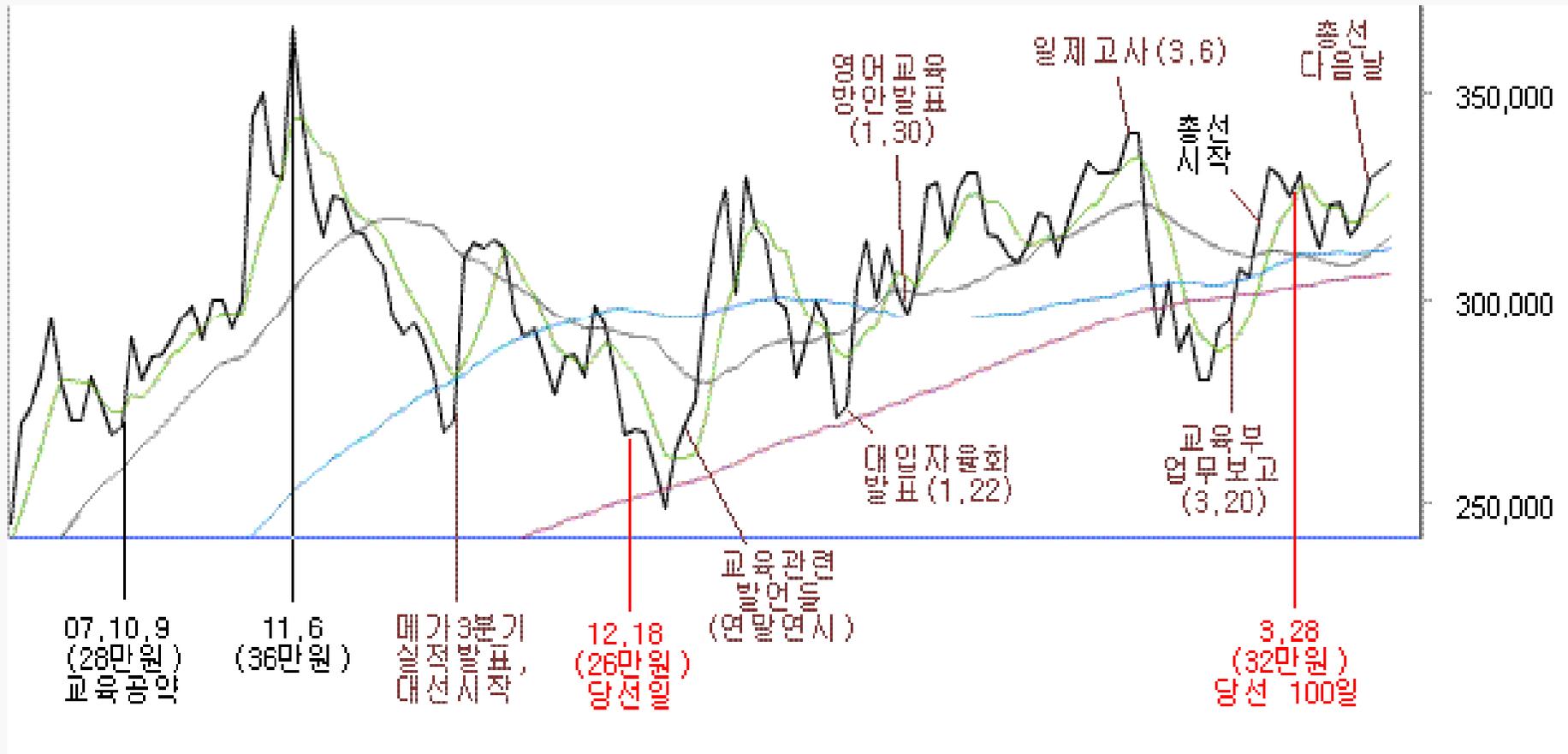
2MB 당선 100일 성적표

2MB 3대 수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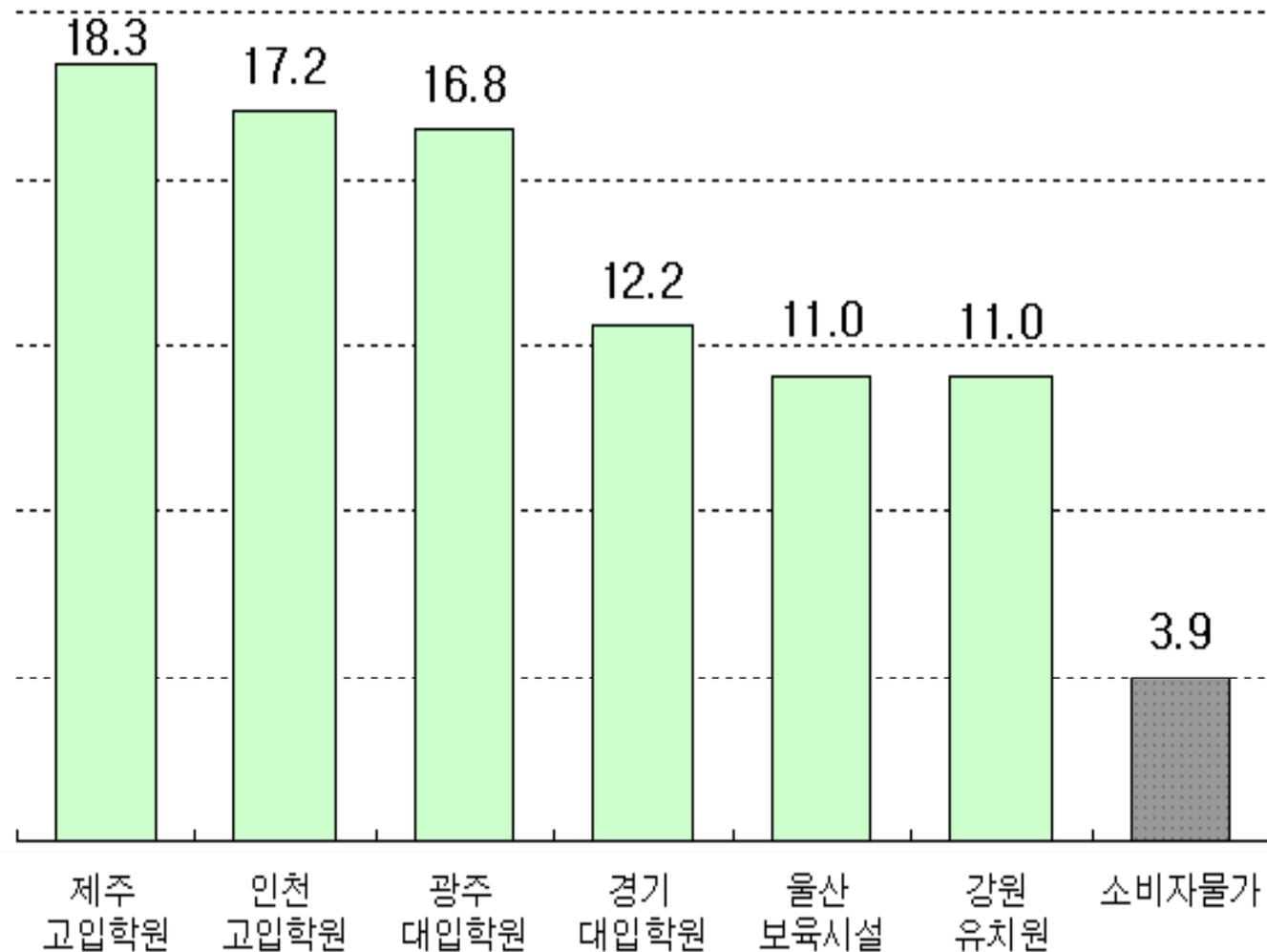
공기업민영화주	건설주	사교육주
금융업종 하락 (16%) 서브프라임 영향	소폭 하락 GS건설 7% 원자재가격 상승	선방(가장 견실) 메가 22% 상승 교육정책 기대감
당선 100일(3월 28일) 동안 KOSPI 지수 8.6% 하락		

메가스터디 성적표



08년 1사분기: 매출 490억원(34%), 영업이익 163억(34% 증가)
2008년 매출 2천억원, 영업이익 6백억원 예상(주가총액 2조원)

지난 3월 교육물가 인상률



- 국공립대 8.5%
- 유치원 8.2%
- 전문대 7.5%
- 보습학원 7.3%
- 사립대 7.1%
- 대입학원 6.9%
- 보육시설 6.6%
- 고입학원 5.8%
- 피아노학원 4.2%

* 전국 현황
(전년 동기 대비)

2008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조직 개편



대학 자율성 확대	초중고 업무 이양	고교 다양화 300	영어 공교육
3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일류고 자율 설립 각종 일제고사 교직원 구조조정	고교입시 부활 정보 공개 평준화세력 진압	영어세상 영어시험 영어외는?
교원평가, 교육재정 감축 등을 부록으로			

교과부 업무보고(3. 20.)

선진일류국가 건설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대입 3단계 자율화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영어공교육 완성
-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복지 기반 확충

-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전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지방교육체정
10% 참여,
영어로 특목자!!!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청 맘대로”
- 교장에게 인사권 일부 위임
-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1군 1개교) 지정
- 마이스터고 20개 지정
- 자율형 사립고 근거 마련(08년 예비선정)
- 대입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 영어전용교사제 관련 법령 개정
- 교원평가 조기 법제화, 평가 연계 연수
- 학습부진아 파악을 위한 국가단위 시험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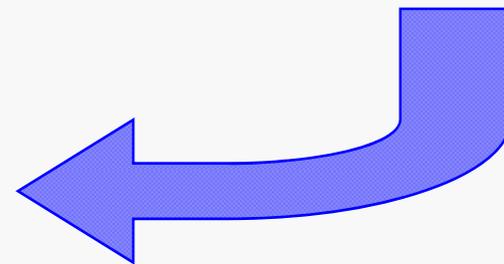
믿습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 관 주도에서 탈피 학교자율경영체제 구축
(교과부) 기획 조정 기능만 수행
(시도교육청) 실질적인 의사결정
(학교) 교장의 자율과 책임 강화
- 학교교육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 제공
가난의 대물림 차단(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살리기 +
선진일류국가 건설



그리고

사학법 개정도 짹짹이

국립대 법인화 한답니다

- 교과부의 과학기술파트에서
 - 국립대 씨 말리기, 모든 대학을 사립대로 만들기
 - 법인화되면, 경북대 등록금 57.4%(192만원), 부산대 57.1%(189만원), 충남대 101.1%(335만원)
- 인상/ 대학교육연구소 2007년 6월

공무원 연금 바꾼답니다(구안 중)

- 행정안전부에서
- “더 내고 덜 받자” 또는 “조금 덜 내고 확 덜 받자”
- 00년 임용 20년 경력은 수령액 20% 덜 받기 운동

전략과 일정

주요 전략

제일 나쁜 건
혁신 보수 대
수구 진보

주요 일정

- '혁신 대 무조건 반대'로 구도 설정
- 다양성, 자율, 선택 이데올로기 활용
- '우리 동네 좋은 학교' 욕구 자극
- 여론 정치의 힘으로 각개격파 구조조정
- 교육복지시스템의 적절한 병행

- 6월 국회 제출
 - 교육청 업무이양(지방교육자치법)
 - 교원평가(초중등교육법)
 - 대입업무 이양(대학교육협의회법)
 - 교육정보 공개(교육정보공개법)
 - 국립대 법인화(국립대법인화법)
 - 공무원연금 개악
- 정기국회 제출: 자사고 법적 근거(초중등교육법)

말하지 않아도 알아



대학 자율성 확대

대입 3단계 자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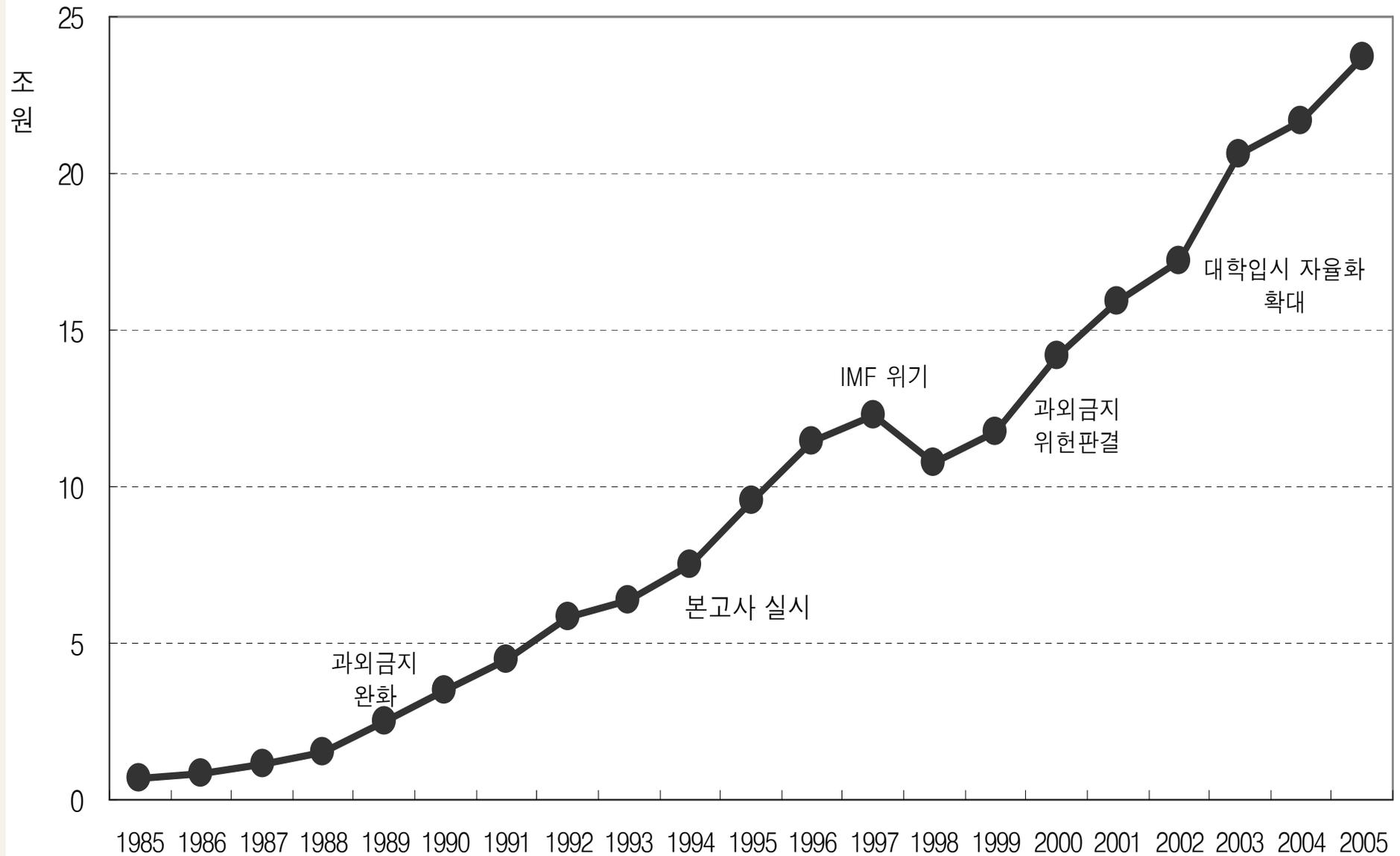
- 그런데 이미 97년 이후 자율화가 확대 중. 3불만 안됨.
- 대학들은 특목고생 싹쓸이를 위해 그 좋은 머리를.....

대입 3단계 자율화 = 3불 폐지, 일류고 우대
(수능 중심 고교등급제로 가다가 본고사)

대학등록금 자율화

- 등록금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천만원 시대’ 활짝
- 민주주의없는 자율, 강자만 자율 의 결과

1985-2005년 유사 사교육비 추계치의 변화



초중고 업무 이양

교육부가 아무 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 교육청들이 알아서 시험보고, 일류고 세우고
- 교육청들이 알아서 교사와 학생 잡아주고

특목고 설립 자율화

- 2001년 이후 시도로 이관, 교육부와 사전협의만 하면
- 07년 현재 특목고 89개, 최근 3년새 12개(13.4%) 증가

* 민주주의없는 자율은 두발단속의 자율

학교자율화 방안(4. 15) 빙자 폐지 지침 중

폐지 지침	우려 지점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열반 편성 귀찮 ▪ 유학반, 서울대반, 연고대반 편성하겠네(학원처럼) ▪ 우등반에 들기 위해 사교육 받기 ▪ 줄세우기와 차별하기를 교육이라 부르기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석을 잊었나 ▪ 학생의 종교 자유 침해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을 빙자한 청소년 노동권 탄압과 착취 ▪ 험값의 청소년 노동으로 돈 벌기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시, 0교시, 강제 보충, 야간 자율학습 권장 ▪ 15시간 학습노동은 기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강자 대교, 웅진 등이 위탁을 통한 학교 접수 ▪ 지자체 영어마을도 사교육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판에... ▪ 이제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6~7교시가 기본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신문 구독 대가로 리베이트(부당 700원) 권장 ▪ 학교 관리자 돈 벌겠네. 그 돈으로 사교육 주식 사기? ▪ 물론 구독료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교재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판매액의 20%) 권장 ◦ 학교 관리자 돈 벌겠네, 그 돈으로 사교육 주식 사기?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보기 권장 ◦ 모의고사 응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두당 1500원)는 당연 ◦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 학원 다니기 ◦ 새로운 사교육산업 등장(미국식 테스트서비스)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은 학원 가서 준비 권장 ◦ 차라리 수능 이후 학교 건물들 학원에 위탁하는게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지 권장 ◦ 교사 1인당 촌지의 적정 가격은 10만원? 30만원?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가서 다쳐도 책임 지지 않기 ◦ 여행자보험, 그게 뭐지
교복 공동구매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등 빅 3 수익 보장 ◦ 리베이트는 결국 누구 돈인가
학교 안전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존 방연한 '좋은나라 운동본부'만 바보 ◦ 교통안전, 약물, 성폭력, 재난, 이제 학교는 모릅니다

0교시, 우열반, 사설모의고사, 촌지가 '규제'면, 신호등 빨간불도 규제인가?

고교 다양화 300

임모탈은 야만인인가



250개 입시보는 고교 = 평준화 해체

300 대 바르바로이(Barbaroi)로 고교 갈라치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갈라치기

영어 공교육 완성

미쳤어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사실은

사교육수익 두 배 !
교육희망 절반 !!

입시 천국 / 학교 지옥
사교육 천국 / 우리집 지옥
부자 천국 / 엄마 한숨
관리자 천국 / 교사 죽었어

* 경기에 따른 가계소득, 양극화, 포기만이 사교육비 감소요인

중1 일제고사 지역별 평균 점수

(*는 학교별 성적 공개, 자료:16개 시·도교육청)

지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총점
서울*	86	87	85	83	76	417
부산*	86	85	85	82	78	416
대구*	87	84	83	84	79	417
인천	지역·학교간 줄세우기 우려로 비공개					
대전	87	84	82	85	80	418
광주	87	86	86	84	81	424
울산	87	84	79	83	79	410
경기*	24일 학교 평균 발표					
강원	학교별로 채점, 도 단위 평균 산출 안함					
충북	도 단위·학교 단위 평균 산출 안함					
충남	85	76	79	82	78	400
전북	지역·학교간 줄세우기 우려로 비공개					
전남	비공개, 개인 성적만 통보					
경북	25~27일 시험 결과 집계					
경남	27일 결과 발표					
제주	86	83	82	84	77	412

서울 강남·북 중1 일제고사 성적 비교

(자료:각 중학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총점
강남 ㄷ중	93	98	96	91	83	461
남 ㅅ여중	93	97	93	88	82	453
강북 ㄷ중	85	80	80	79	84	408
북 ㅅ중	89	92	89	86	79	435
서울평균	86	87	85	83	76	417



시장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있으면 에쿠스 사고
 없으면 걸어가고”** 가 아니라
**“에쿠스 못 사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 는 거



다른 길을 말하라



야누스 국민

나쁘게 말하면, **이중적**

“앞에서는 공교육, 뒤에서는 사교육”

다르게 보면, **변화에 대한 열망**

“사교육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

“하지만 이걸 사는 것도, 교육도 아니다”

2MB의 변화에는 다른 변화로 맞붙을 !

핵심은 역시 입시

입시 고통 vs 입시 해방

고교 입시 부활 vs 대학까지 평준화

학벌주의 vs 학벌 철폐

교육시장화 vs 교육공공성

강자만 자율(다양성) vs 약자도 자율(다양성)

국공립대 축소 vs 국공립대 확대

사교육비 확대 vs 사교육비 해소

구조조정 vs 교육의 질

담론과 과제

문제는 입시야

“문제는 대학서열체제야”

“문제는 학벌이야”

“모두의 자율과 다양성이 필요해”

“핀란드 보라”

과제

○ 평준화에 대한 오해 불식

“모두의 자율과 다양성, 그래서 평준화”

○ 폭로: “교육 인수하여 누구에게 파나?”

핀란드와 한국

	핀란드	한국
국제 학력평가	세계 1위	2~3위 (딱 여기까지만 비슷)
교육재정	GDP 대비 6.0%	4.4% (애개~)
무상교육	○ (대학까지, 교통비도)	× (의무교육에서도 못하는데)
사회복지	○	× (잘리면 죽는다)
학벌사회	×	○
대학서열	×	○ (SKY만 대학)
대입경쟁	× (대학입학자격고사)	○
사교육비	× (그게 뭐예요?)	○
일제고사	×	○
줄세우기 시험	× (교사가 도와주는 시험)	○ (컨닝하면 죽는다)

학생간 비교	× (그게 교육인가요?)	○ (그게 교육이래요)
성적표상 석차	×	○ (떨어지면 죽는다)
학교 차별	×	○ (교복에서 마크 떼라)
학급, 분단 차별	×	○ (우리 애가 왜 열반이냐)
교육과정	다양(교사 자율)	획일(교사는 시키는 대로)
장학	×	○ (오늘 몬댄다)
영재교육	×	○ (돈칠하면서 만들기 대작전)
특수교육	○ (매우 발달)	×
보충수업	○ (매우 발달, 본래 의미로)	× (보충수업이라 부르긴 하나)
평준화	○ (매우 극단적)	× (고교의 경우, 절반만)
공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싫어도 억지로 책상에 앉기”
외부 평가	“꿀찌도 행복, 부럽다”	“일등도 불행, 부럽진 않다”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education)	경쟁(competition)

핀란드, 1963년 의회 결정, 1968년 법 제정, 1972년 본격 시작!

우리, 1974년 고교평준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입시교육에 맞섰던 전교조 샘과 학부모단체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흘렸던 아이들이 이젠 30대,
학부모가 된 그 아이들이
어쩔 자기 아이에게도 그 감동과 눈물을 전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선생님과 그 분들이 있어”라고.

일단 “시름에서부터 해방” !!

